



Florence Nightingale

Case: OL-22¹

Date: 06/2015

런던, 버킹엄 궁, 여왕의 집무실에서

1855 년 초, 겨울의 찬바람으로 아직은 추운 어느 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깊은 고민에 잠겨 그녀의 집무실을 서성거렸다. 여왕은 평소에 결단력이 있고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하는 데 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전쟁의 피비린내가 느껴지는, 서로 다른 두 통의 편지 앞에서 여왕은 손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두 편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었고, 문장 하나하나마다 독기를 잔뜩 품었거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두 편지 모두 여왕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신랄한 어투를 머금고 있었다.

앨버트 공은 여왕의 배우자로서 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으나 이번에는 설불리 나서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진 두 개의 봉투를 바라보았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는 아마도 크림 반도에서 작성된 편지를 담은 채 런던까지 날아왔을 터였다. 그는 먼저 그 봉투에 손을 뻗었다.

저는, 처절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전해 올리는 연유로 이 편지의 필체가 다소 고르지 못하고 투박하다는 점을, 사려 깊으신 여왕 폐하께서 너그러이 보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 그 여자(나이팅게일)는 군의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군이란 때로는 뒤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며 병사들의 후생에 집중해야 하지만, 때로는 지원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방 돌파 및 그에 수반하는 부가적 전략들을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오스만, 프랑스와 연합하여 세바스토폴 요새를 포위하였습니다.

¹ 본 Case는 2015년 봄학기 '조직학습: 기회와 함정' 수업의 일환으로 이무원 교수의 지도 하에 이주상, 김성준, 김수정, 박지윤, 임성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위의 저자에게 있음.

사르데냐-피에몬테 또한 1 만 8 천의 정예군을 파병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이 최전선에서 혈투를 벌이는 병사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본인이 간호사라는 이유로, 후방의 스쿠타리에 있는 야전병원을 확장하거나, 이미 크게 다친 병사들에게 최전선의 병사들이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도 집중치료실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일개 사병에 이르는 모든 명령권이 완전히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던 우리 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여 놓았습니다. (...) 명철하신 여왕 폐하께서는,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길은 오직 무기를 확충하고 전함을 증파하는 길뿐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의 독선적인 성격은 군의 화합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군의 자금을 무기와 전함이 아닌 다른 곳에 쓰자는, 지극히 몰상식적인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 강력한 단결, 신속한 전략 실행, 이를 통해 이미 영국군은 유럽을 넘어 전세계를 호령해 왔지 않습니까?

앨버트 공은 한숨을 쉬며 여왕의 뒷모습을 응시하였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녀의 간호사들을 이끌고 스쿠타리로 갔던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육군 장교들의 이러한 불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나이팅게일이 전선에 도착하고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녀와 장교들 사이의 갈등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아마도 또 한 통의 편지는 방금 읽었던 편지와 완벽히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앨버트 공은 생각하였다. 그 생각은 합리적이었다.

폐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런던의 다소 흐린 날씨조차 이따금 그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 부상자들은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만큼 의료 물자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일전에 알려드렸던 대로 - 그리고 폐하께서도 꽤히 승인하셨었지요 - 가장 심각했던 위생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좋은 곳에 써 달라는 말과 함께 지원금을 보내 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규모 전투로 부상자가 끊이지 않던 차에 정말 잘 된 일이죠. 저는 대강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병원의 실내 공간을 조금만 더 넓히고, 중상자들을 따로 돌볼 수 있는 치료실을 서너 개만 만들면 사망률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폐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인지 단번에 눈치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병사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그만큼의 숫자를 본국에서 새로이 파병하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 이곳 지휘관들은 바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상자들에게 깔끔한 옷과 잠자리가 왜 필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더니, 지금은 중상자를 왜 더 신경 써서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바보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압니다. 지금 군은 전체적으로 썩어빠진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고, 분석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맹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세바스토폴의 러시아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총원된 병사의 수가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강인 우리 군의 장비가 낙후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력은 충분합니다. 다만 최상위 군사조직에 변화를 줄 시점이 다가왔을 뿐이죠. 군 전체의 열린 사고를 위해서요. 지휘관은 어떡하냐고요? 그들도 전쟁성의 전시행정을 눈 감고 수행해야 하는 허수아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앨버트 공이 두 통의 편지를 모두 읽고 잠깐 생각에 빠진 사이 15 분이 지났다. 여왕은 이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서서 창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흐린 날씨는 일주일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왕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몰려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군 장교들의 주장도, 나이팅게일의 주장도 모두 합당한 논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 지극히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통치자로서는 둘 중 하나를 버리기도 아까울 것이었고, 둘 모두 안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었다.

앨버트 공은 자신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지 고민해 보았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점차 축적되면서 갈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심화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선불리 그 문제의 한 단면만을 보아서 안 된다는 점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여왕 또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었다. 여왕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앨버트 공은 여왕과 마찬가지로 고민에 잠겼다.

나이팅게일 가

플로렌스의 출생

1820년 5월 12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부친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과 모친 프랜시스 나이팅게일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들의 첫째 딸 파르테노프의 이름을 파르테노폴리스(현재 이탈리아 나폴리에 병합된 지역)의 지명을 따서 지었던 것처럼, 둘째 딸의 이름 또한 그녀가 태어난 이탈리아의 도시 '피렌체(Firenze)'를 따서 '플로렌스(Florence)'로 지어졌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상류계층

나이팅게일의 아버지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William Edward Nightingale)은 20대 초반에도 7000~8000 파운드의 연 소득을 올렸다. 그의 본명은 윌리엄 에드워드

쇼어(Shore)였지만 그는 조부모의 형제인 피터 나이팅게일의 유산 상속자가 되면서 성을 나이팅게일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시 더비셔(Derbyshire)에 있던 저택 레아 허스트(Lea Hurst)를 상속받았다. 유명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스미스의 딸 프란시스 스미스와 1818 년 결혼한 뒤 부동산 재산은 엠블리 파크(Embley park)를 포함해 둘로 불어났다. 비록 낙선하였으나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윌리엄은, 햄프셔에서 휘그당으로 국회에 입후보하기도 했다. 나이팅게일 부부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전형적인 상류계층이 그러했듯이, 딸들이 기본 교양을 위한 문학, 어학, 지리학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문의 반대

당시 부유한 상류층 여성들의 행복한 삶이란 무도회를 즐기다가 만찬에 참여하고 좋은 집안의 부유한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신이 내린 신분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좋은 환경들에 적절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솔즈베리(Salisbury) 병원에서 몇 달 동안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고 선언하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부친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선을 보게 했고 모친과 언니는 적극적으로 그녀를 만류했다.

가족들의 만류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간호사란 더러운 의복을 걸치고 항상 술에 취해 있으며 불법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상스러운 여성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은 가장 간단한 의학 업무를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로 여겨졌다.

“우리는 오리인데 어찌다가 야생 백조를 낳았을까?”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언젠가 친구들 앞에서 울먹이며 이렇게 한탄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전기 작가 리튼 스트레이치는 “그 가련한 부인의 생각은 틀렸다. 그들이 낳은 것은 백조가 아니라 독수리였으니까.” 라고 말했다.

“마치 식모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후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 일을 회상하며 말했다. **(exhibit 2)**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의 소명의식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17 세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가족은 결사 반대했지만 본인은 하느님으로부터 간호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남달랐다. 그녀는 다친 개 한 마리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인형을 껴매면서 기쁨을 느꼈으며 당시 상류층 여성들과는 달리 오두막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다. 매력적이고 교양 있는 여자였던 나이팅게일에게 하우턴 제 1 남작(1st Baron Houghton)이자 정치가, 시인이었던 리처드 먼크턴 밀니스(Richard Monckton Milnes)와 같은 남성들의 청혼이 이어졌으나 나이팅게일은 간호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하며 때를 기다렸다.

전문성 획득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솔즈베리 병원에서 일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뒤 8 년 동안, 표면상으로는 상류사회 여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몰래 의학위원회의 보고서들, 보건당국의 팸플릿들, 병원과 요양소들의 역사서를 읽었다. 나이팅게일은 런던 사교계가 휴식하는 시기에 사교계의 지인들이 오지 않는 초라한 학교와 빈민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유럽 어디에도 그녀가 정통하지 못한 큰 병원이 없었고 그녀가 모르는 대도시의 빈민가가 없었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나이팅게일의 말에 가족들은 그녀를 만류하며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으나 그녀는 한시도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1840 년 후반, 어머니와 언니가 칼스버드(Carlsbad)로 광천수를 찾아간 동안 그녀는 집을 몰래 빠져나가 독일 카이저스베르트-암-라인(Kaiserswerth-am-Rhein)의 목사 테오도르 플리트너(Theodor Fliedner)가 이끄는 개신교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4 개월에 걸친 의료 교육을 받으며 간호에 관련한 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나이팅게일은 간신히 독립을 얻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연간 500 파운드(오늘날 기준 6 만 5 천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 그녀의 간호 경험과 지식은 인정받았고 그녀는 1853 년(33 세) 런던 할리 가에 있었던 여성 환자 치료 시설의 관리자가 되어 1 년 동안 일했다. 그녀는 당시 빈민가에 번졌던 콜레라에 맞서 열성적으로 일했다.

그녀의 사람들

시드니 허버트(Sidney Herbert)

1847 년 로마(Rome)에서 나이팅게일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훗날 크림 전쟁 때 전쟁성 장관(Secretary of War)이 되는 시드니 허버트(Sidney Herbert)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후

평생지기가 되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능력에 관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충실한 벗이었던 시드니 허버트는 크림 전쟁 당시 전쟁성과 내각에 재직 중이었다. 그는 크리미아(Crimea) 지역에서 나이팅게일이 수행했던 간호 활동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혹 ‘풍부하게’ 보낸 의료품들이 어쩌면 늦게 도착할지도 모르나, 곧 개선될 게요.”

전쟁에서의 물자공급에 대해서는 허버트 또한 당시의 다른 전쟁성 재직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허버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했던 나이팅게일의 새로운 생각들에 대하여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게 했고, 그녀의 날카로운 반응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했다. 그가 나이팅게일의 의도를 오해하고 명시적인 지시를 반박하였다가 그녀로부터 강력한 질책을 받았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었다. 둘 사이의 유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1861 년 허버트가 브라이트 병(Bright's Disease, 신장염)으로 사망하였을 때 나이팅게일은 격한 감정 속에서 죽은 이에 대한 기억을 승배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 **(exhibit 3)**

매이 아주머니

매이 아주머니(Aunt Mai)는 어릴 때부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편에서 그녀를 지원하고 그녀가 가족 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크림 전쟁 때에는 나이팅게일을 전장으로 데려간 단 두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녀는 할리 가에서부터 나이팅게일을 수행하였고 나중에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후에 나이팅게일이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녀는 나이팅게일의 손과 발처럼 행동하며 수발을 들었다. 그러나 매이 아주머니는 나이가 든 뒤로 자기 가족에 대하여 더 중요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느껴 나이팅게일을 떠났다. 나이팅게일은 신의가 없다거나, 동정심이 결핍되었다거나, 우둔하다는 등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통렬한 비난을 퍼부었으며 이는 여성의 무능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기타

그 외에도 나이팅게일의 주변에는 나이팅게일의 사람들이 많았다. 크림 전쟁 당시 영국군의 병원이 있었던 스쿠타리로 떠날 때에는 38 명의 영국 성공회 출신 간호사들과 함께하였다. '타임즈'의 기금을 모아 전쟁터로 달려왔던 맥도널드 또한 영국 대사보다 나이팅게일의 능력을 믿었으며 시드니 허버트의 부인 또한 나이팅게일의 열렬한 추종자였다.

크림전쟁 (exhibit 4)

영국의 참전 배경

1815년 6월에 벌어졌던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격퇴함으로써,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유럽의 패권은 프랑스 최대의 견제 세력이었던 오스트리아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빈 체제로 이전되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왕정복고 체제로 회귀하려는 목적에서 결성된 빈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이 힘을 모으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는 기독교 동맹의 성격을 띠는 신성동맹을 체결하였고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시야는 4국동맹 협정에 조인하였다.

빈 체제는 1830년대부터 그리스의 독립과 자유주의자들의 빈번한 혁명 등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1848년에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민중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유럽의 동쪽에서 동맹 군사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꾸준히 남하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그 당시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오스만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를 믿는 러시아의 신자들이 오스만 제국에 다수 분포해 있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여 가톨릭 성지관할권을 얻어내자,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내의 정교 신자들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지의 종교적 자유를 요구하는 동시에 군사적으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지중해 해상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던 영국에서 러시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오스만 제국에 권유하였고, 오스만 제국도 크림 반도 북부의 속국들을 잃게 되면 수도인 이스탄불이 국경으로부터 매우 가까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결심하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1853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오스만 제국의 몰다비아, 왈라키아를 선제 침공하며 전쟁을 일으켰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할 만큼 군사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오스만 제국은 즉각 서유럽에 원조를 요청하였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해 왔던 오스트리아, 유럽의 세력 균형을 우려하였던 영국과 프랑스, 우호국을 만듦으로써 이탈리아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던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만 제국의 원조 요청에 응하여 연합군을 구성하고 크림 반도로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나이팅게일의 참전 배경

크림 전쟁은 러시아군과 연합군을 통틀어 전체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초과한 전쟁이었다. 특히 격렬한 단기전이 빈발했던 전쟁 초기부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사망률은 참전국마다 비슷한 수준이었고 각국의 사망자 수는 병력의 수에 비례하였다. 러시아가 약 50만 명, 오스만 제국이 40만 명, 프랑스가 10만 명, 영국이 2만 명 가량의 병력을 잃었다. 영국은 함대를 이용한 해상 전투에 많은 역량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크림 반도에 파병한 병력의 수는 타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비슷하였다.

영국군에서는 모든 부상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을 만큼 군 병원 의료진의 수가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영국 언론에서는 프랑스와 비교하여 헌신적인 간호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았고, 영국 전쟁성 장관이었던 시드니 허버트도 이러한 비판이 점점 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 무렵 이미 나이팅게일과 교류하고 있었던 허버트는, 간호사들을 추가적으로 파견하려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나이팅게일에게 알렸다. 그는 전쟁 현장이 위험하다는 점과 간호사로서의 헌신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동시에 이번 일이 나이팅게일의 역량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이팅게일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어 왔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간호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참전 의지가 매우 확고하였고, 여왕 또한 평소에 그녀의 능력을 크게 신뢰해 왔던 터라 그녀의 참전이 승인되자 가족들 또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이를 받아 들였다.

크림전쟁 당시의 상황

영국 본토 행정

크림전쟁 당시, 전쟁의 상황은 영국 대중들에게 드러난 것보다 더욱 암울했다. 전쟁터에서 영국의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하위 공무원들의 사소한 실수들이 모여 혼란스런 체계의 고유 결점들과 결합되었다. 각료들의 일상업무는 크게 경직되어 있었고, 타 업무들과 전체 거시적 환경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이었던 것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군대를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의료와 위생에 대한 관심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세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교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에 따라, 크림 전쟁이 발발한 뒤 여러 달이 지나고 마침내 알마(Alma) 전투를 치른 뒤에야 스쿠타리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 세워졌다.

전방의 군 병원 프로세스

“병사들의 뇌는 군 규범들 사이에 끼어 찌부러져서 그들은 마치 늙은 아이들처럼 행동한다”

군 병원에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기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했다. 어떠한 사안이 통과되려면 수많은 조직의 까다로운 심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군

병원에는 기존의 관행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많은 서류를 제출하고도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쿠타리 병원에서 새로운 침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런던에 있는 육군 의료청장에게 먼저 진정서를 보내야 했다. 그러면 청장은 근위기병 본부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기다려야 했고, 근위기병 본부가 승인하면 이 안건은 군수부로 이전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정은 군수부에서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당시 군수부는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재무부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재무부가 안건에 대해 동의하면 비로소 이 안건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예상하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런던의 정치 상황에 따라 한 달이 걸릴 수도, 일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군 병원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민간병원

대부분 민간 병원들은 부자들의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재정, 혹은 종교적 문제²와 같은 요소로 인해 치료하기 힘든 사람들은 철저히 거부했다. 환자의 입원 허가 규칙은 훨씬 엄정하게 준수되었다. 불치병, 정신질환, 만성질환, 성병, 치사율 높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과 임산부는 진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그 장례비용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것이 관례였고 이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병원들은 사망률이 낮았다.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호의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병원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래서 실상 병원들이 사망률 저하에 기여한 바는 별로 없다.

군 병원의 특수성

군 병원은 일종의 네트워크 병원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대형 병원들과 전방 지역의 중소형 병원들이 서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전방에 있는 중소형 병원에서는 경상 환자를, 대형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관리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군 병원에는 후송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었다.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는 전방 지역에서는 이들의 수술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² 부자들은 병원을 후원함으로써 종교적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병원들은 후원자들이 후원 행위로 인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표로써 사망자 수를 줄이고 싶어 했다.

환자들을 대형 병원으로 보내 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전방 지역의 치료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후송 시스템에서는, 후송 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승차감이 불편한 교통 수단으로 인해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환자들이 감염에 노출되어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후송 과정에서의 사망률도 매우 높았다.

무리해서라도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키려 했던 이유는 회전율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군인은 민간인처럼 수술이나 치료 후에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회복 경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다. 이 때문에 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일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오래 병실에 머물렀다. 이러한 이유로 군 병원은 병상의 회전율을 어떻게든 높여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병원의 구성원

당시 병원은 지역의 어떤 자선기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운영권은 성직자와 의료진을 포함한 엘리트 그룹으로 구성된 평임원에게 독점되었다. 병원에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집결되었다. 그렇게 제1의 시민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진 병원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정도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크기를 재는 지표였다. 병원은 그에 따라 지도층으로의 진입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고, 새 평임원의 선출을 둘러싸고 당파적 이익을 위한 갈등과 경쟁이 빚어졌다. 스쿠타리 군 병원의 평임원 목록에는 군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지휘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 병원의 외과 의사(Surgeon)들은 당시 교육기관에서 이론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내과 의사(Physician)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받았다. 그들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도제 방식을 통해 오랜 기간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기술을 익힌 전문가들이었다. 이러한 의사들은 진료와 치료의 주체였다. 그러나 의사에게는 비전문가인 평임원들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대체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간호사들은 대개 상류 계층이 아닌 출신의 여자들이었다. 당시 간호는 훈련이 필요하다고도 여겨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고등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다. 당시 미혼인 여성이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간호사가 의료 행위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간호사는 실제의 진료와 치료 행위에 참가하지 못했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다. 위생에 대한 당시 일반인들의 개념은 현대의 위생 개념과 매우 동떨어져 있었다. 간호사들이 단정하지 못한 치마를 입고, 반지를 끼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부도덕하다고 칭해지는 것은 과하게 더럽고 항상 술에 취해 있다는 부분이었다.

나이팅게일의 스쿠타리 병원 부임 이후 상황, 갈등 및 변화

1854년 11월 5일, 나이팅게일이 스쿠타리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의 처참한 상태는 상상 이상이었다. 침대와 침구들은 피와 고름과 먼지가 뒤덮여 원래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결했고, 부상병들은 구정물과 구더기로 가득한 바닥 위에서 뒹굴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투 때문에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추가로 이송되었으나, 의료진의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의사들의 휴게실조차 병동으로 개조할 정도로 그들을 수용할 공간 또한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한정된 의료진의 숫자에 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상병들이 스쿠타리 병원에 상주했다. 그들에게 스쿠타리 병원은 빠져나갈 수 없는 무덤과 같은,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³

나이팅게일은 어떤 지원도 없이 몇몇의 간호사들과 함께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다. 야전 상황에만 정신이 팔린 간부들이나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는 수석 군의관이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손수레 215개 분량의 먼지를 털었고, 하수구를 열 번도 넘게 닦아냈다. 끝이 없는 위생 개선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나이팅게일은, 봄맞이 대청소가 끝난 어느 날,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음을 발견했다. 시체로 실려나가는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이에 의문을 품고 사망의 원인, 특히 위생과 사망과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상자들이 치명상을 입어서 많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병원 시설이나 불충분한 관리로 인한 추가 감염 및 염증 발생이 더 많은 사망을 야기한다는 괄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위생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된 그녀는 위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으며, 이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병원 책임자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군 간부들은 지원금으로 구입한 무기와 갑옷들이 병사들의 치명상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믿었고, 서로의 업적을 치하하기에 바빴다. 그들은 야전에 쓰이는 자금의 일부를 위생에 투입하라고 주장하는 나이팅게일의 호소에 코웃음을 쳤다. 이미 지원금의 대부분이 야전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다. 그들은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 외려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exhibit 10)

나이팅게일이 갈등을 겪었던 것은 스쿠타리의 장교들뿐만이 아니었다. 워털루 전쟁의 영웅이며 토리당의 수상이었던 웰링턴 공작이 한 세대 동안 근위기병대 본부에서 철통같이 개혁을 저지하고 있었다. 근위기병대 본부의 보수적인 태도는 전쟁성 본부뿐만 아니라 스쿠타리의 작은 군 병원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군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 - 스쿠타리 장교는 물론이고 납품관리자, 의사, 심지어 동료 간호사들까지 - 또한 그러한 관성적 무능에 익숙해져 가던 터였다.

³ 실제로 나이팅게일 부임 전 스쿠타리 병원의 사망률은 40%를 상회했다.

나이팅게일에 대해 한 행정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플로렌스 그 여자는 여태껏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괜히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곳에서 수십 년을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이것저것 찿러보고 다니지 않아도 지금까지 자연히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죠. 전쟁 전에도 그러했고 전쟁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댈 수 있을 만큼은 된단 말입니다. 괜히 일을 벌였다가 책임지지 못할 문제를 만들기는 싫단 말이지요.”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아주 작은 비효율이라도 참아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한 번은 본국 정부가 나이팅게일의 요청에 의해 스쿠타리로 보내 준 27,000 벌의 셔츠가 도착해서 하선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관리인인 납품담당자가 개입하여 ‘평임원의 동의 없이는 짐을 풀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나이팅게일이 항의했으나 납품관리자는 평임원의 동의를 받아오라며 자신에게는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대답만을 반복했다. 그리고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평임원의 승인이 떨어졌고 그 동안 부상병들은 입을 옷이 없어 알몸으로 떨고 있어야 했다. 이후 정부에서 지원 물품을 받을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다른 한 번은 본국에서 보낸 방대한 양의 물품이 다른 군수품들 아래에 묻혀서 납품관리자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배를 그대로 보내버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 물품들은 흑해를 세 차례나 돌다가 겨우 스쿠타리에 내려질 수 있었다. 그 전까지 이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스쿠타리의 의사들도 그녀의 활동에 회의적이었다. 의료진으로서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 것이라고 여겨졌던 수석군요관도 전염병이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으며, 병원에 창궐하던 전염병이 줄어듦과 동시에 사망률이 낮아졌다고 믿었다.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병을 무슨 수로 줄이고 예방하겠다는 것이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설부른 추측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오!” 그는 이러한 이유로 나이팅게일의 부탁을 거절했다.

애초에 그들은 여러 가지 개혁안을 들고 들어온 나이팅게일을 신뢰하지 않았다. 당시 간호사들은 부도덕한 행위로 악명이 높았고 간단한 의학적 업무조차 맡기기 어려울 정도로 무지했다. 의사들에게 나이팅게일은 그러한 간호사들 중 한 명일 뿐이었고, 설령 그녀가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개혁이 멍청하고 부도덕한 간호 부대 안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개혁안은 그저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여겼다.

플로렌스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동료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크림 반도에 있었던 기존의 간호사들은 대부분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었으나 나이팅게일이 스쿠타리에 새로이 데리고 온 간호사들은 거의 다 성공회 출신이었다. 그러한 종교적 차이로 인하여 나이팅게일에 대한 루머가 돌아다니기 일쑤였고 군대 간호사들 전체에 대한 그녀의 최고 권위가 의심받기도 했다. 이

갈등이 심화되어 크림 반도에 있었던 수녀원장 브리지맨 부인이 나이팅게일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고 나이팅게일을 평소 눈엣가시로 여겼던 전쟁성에서도 브리지맨 부인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 수석 의무장교는 나이팅게일을 굶겨서 복종시키려 했고 실제로 열흘 간 그녀에 대한 식량 지원을 끊었다. 그는 동일한 방법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의사들을 복종시킨 경험이 있었던 터였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이팅게일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자신이 생각한 개혁안들을 하나씩 현실화시켜 나갔다. 그녀는 그녀의 영원한 심복인 시드니 허버트로부터, 그리고 그의 전쟁성 후임자인 팬뮤어 경으로부터 견고한 후원을 받았다. 이는 그녀가 병원을 개혁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다. 그녀 뒤에는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영국의 여론은 그녀의 업무가 지닌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정했으며, 그녀의 업적에 대한 여론의 열광적인 평가는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충분했다. 이에 여왕도 깊이 감명을 받아 부상자들에 대한 나이팅게일의 보고서를 보고 싶어했고, 그녀는 군주와 군대 사이의 중개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중요한 위생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42%에서 2%로 감소하자 나이팅게일에 대해 반목했던 의사, 간호사, 병사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의 정신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독서실과 오락실을 만들고 비품을 비치했다. 또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다. 장교들은 그녀의 행동이 짐승 같은 병사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병사들은 놀랍게도 술을 덜 마시기 시작했고, 불가능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료를 저축해 나갔다.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송금을 위한 자체 기구를 설립하도록 팬뮤어 경에게 요구했다. '아무 이익도 없을 것이며 영국 군인은 본성이 송금과는 거리가 먼 동물들'이라는 장교들의 회의적인 생각과는 달리 6 개월 동안 무려 71,000 파운드가 본국으로 송금되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에 대한 스쿠타리 간부들의 배척은 여전히 심했고 갈등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나이팅게일과의 만남을 미루었다. 그녀가 제안한 내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스쿠타리 간부들의 선에서 걸러지기 일쑤였다. 겉으로는 봉사하는 천사에 대한 경의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방식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일부 간부들은 전쟁을 겪어본 적도 없는 여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핏대를 세워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폄하한다며 그녀를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이팅게일은 군 병원의 무능함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다시 런던, 버킹엄 궁, 여왕의 집무실에서

앨버트 공은, 고민을 거듭할수록 군 장교들과 나이팅게일 사이의 간극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였다. 장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이었고, 그들의 활약은 지금의 빛나는 대영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전장에서 어느 한 쪽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면, 앨버트 공 자신부터가 군 지휘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줄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언제까지나 영국군에게 승리만을 담보하지는 않을 것이고, 언제나 그렇듯 영원한 강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앨버트 공 또한 지금까지의 방식에 어찌면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시드니 허버트로부터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그녀는 천재입니다. 지독한 천재 말입니다. 있는 힘껏 일해도 당장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녀는 정말로 모든 힘을 다 짜냅니다. 그러면서도 명석한 두뇌는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앨버트 공은 허버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가, 또 다른 전쟁성 인사로부터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허버트 말입니까? 치맛바람에 정신 못 차리는 그 허버트요?”

여왕은 문득 서성거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배우자를 돌아보았다. 오랜 고뇌의 흔적이 얼굴 전체에 남아 있는 듯하였다. 앨버트 공은 지금 여왕에게 자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공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단순히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시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의 의견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앨버트 공은 호흡을 가다듬었다. 자신의 대답 한 마디가 어느 한 쪽에 체크메이트를 선언할 수도, 대결구도 자체에 스테일메이트를 선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매일 사지를 넘나들며 전투를 치르는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소요할 수는 없었다.

“폐하, 제 생각으로는.....”

질문

1. 스쿠타리 병원의 높은 사망률에 대하여, 나이팅게일과 군 병원이 생각했던 원인은 각각 무엇이었는가?
2. “높은 사망률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가” 에 관하여, 나이팅게일과 군 병원이 각각 자신의 생각을 여왕에게 주장하여야 하며 여왕은 둘 중 하나의 주장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왕, 나이팅게일, 군 병원의 입장에서 각각 Role Play 를 해 보자.
3. 나이팅게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군 병원이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Exhibit 1. 나이팅게일 사진과 친필 서명



Florence Nightingale

Exhibit 2. 나이팅게일의 친필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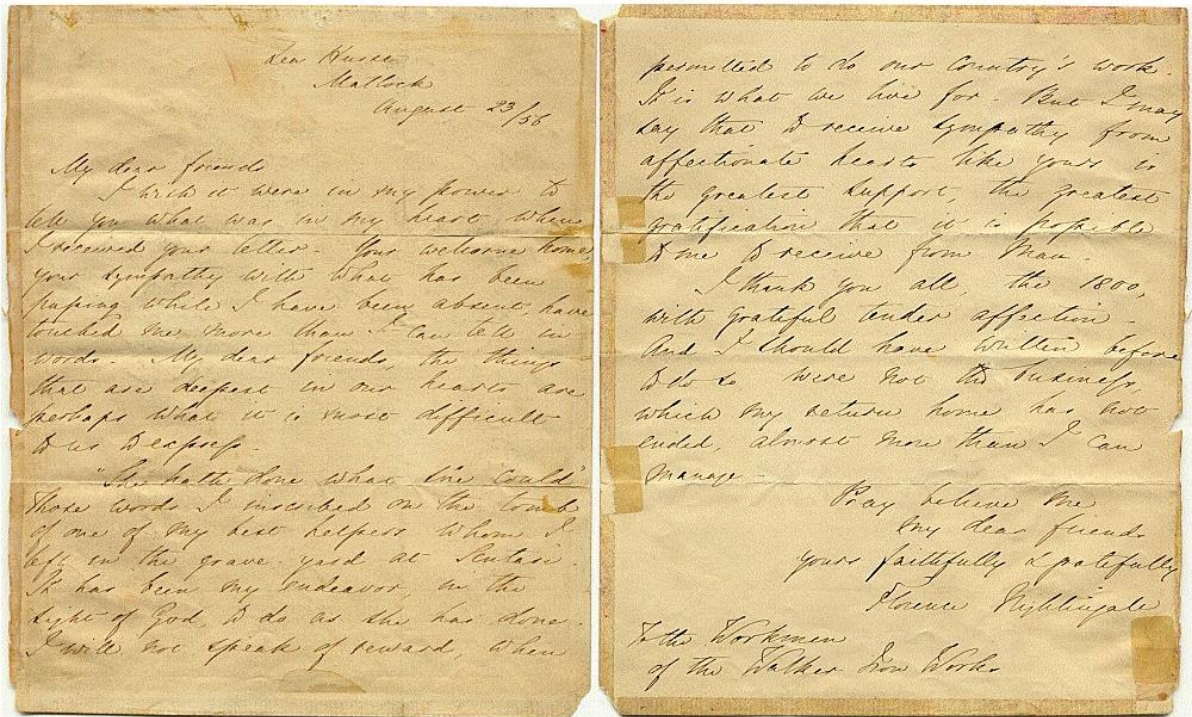


Exhibit 3. 시드니 허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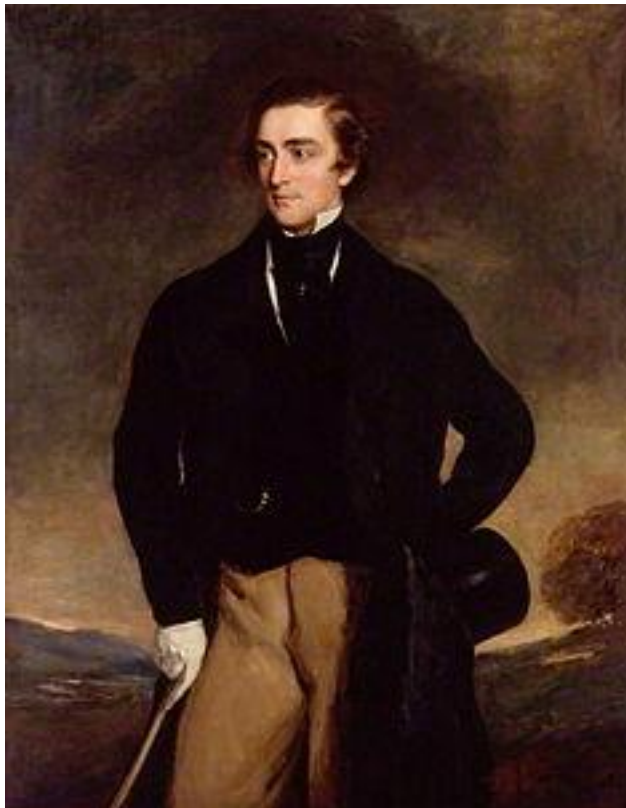


Exhibit 4. 크림전쟁



Figure 1. Map of the Crimean War theater, reprinted from the biography by Gill [4] (copyright held and reprinted with permission by Random House Publishing) [4].

Exhibit 5. 영국군과 프랑스 군의 겨울 사망률 비교†

	no. of dead	total troops	% deaths/troops
1st winter			
French	10,934	89,885	11%
British	10,989	47,749	23%
2nd winter			
French	21,191	106,634	20%
British	606	27,384	2.5%

† Source: Chenu (1870) 131.

Exhibit 6. 병원 별 사망률과 담당 간호사†

	Period	Deaths/Admissions	Nursing Responsibility
Koulali	Feb-Je55	25.9%	Irish Sisters of Mercy
Camp	Ap55-Je56	18.8%	(prob) Sardinian Sisters of Charity
Varna	Je54-Ja55	13.1%	no women nurses
Scutari	Je54-Je56	11.9%	Nightingale (mainly)
Abydos	Se54-Se55	10.1%	civil ‡
Smyrna	Fe55-No56	8.2%	Civil
Balaclava	Oc54-Je56	7.7%	Nightingale
Renkioi	Oc55-Je56	3.8%	Civil
Castle	Mar55-Je56	3.8%	Nightingale
Monastery	Jy55-Je56	3.1%	Nightingale

† Source: Chenu (1870) 131.

Exhibit 7. 병원 유형 & 위생 상태와 사망률 간의 관계 (크림 전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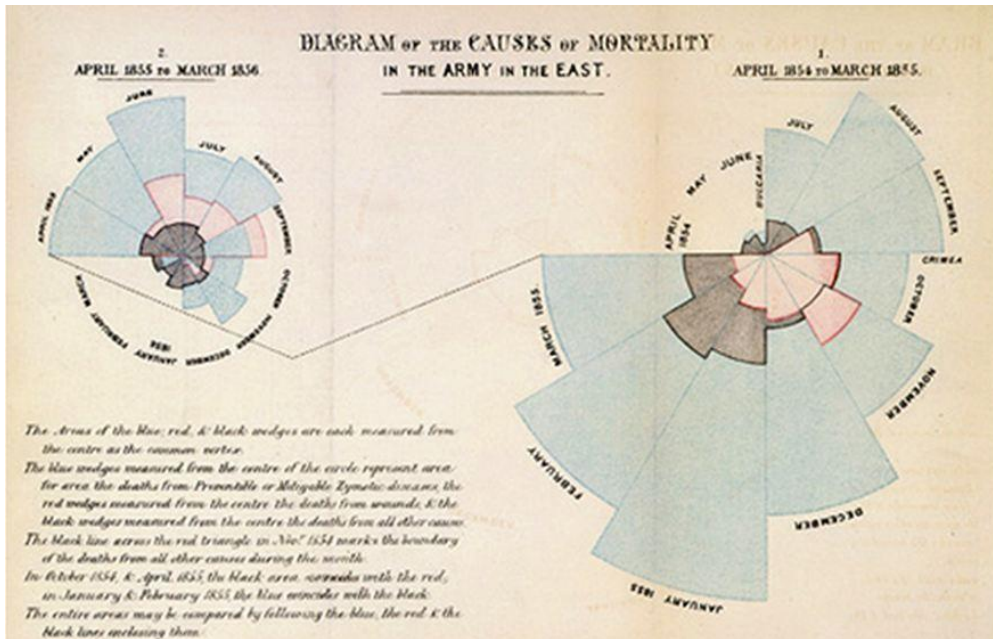
	Deaths/Admissions	Type of Hospital	Sanitary Condition
Koulali	25.9%	General	worst, very serious defects
Camp	18.8%	General	half-buried, defective huts
Varna	13.1%	General	cholera conditions
Scutari	11.9%	mainly large	2nd and 3rd worst hospitals
Abydos	10.1%	small, civil	N.A.
Smyrna	8.2%	Convalescent	serious defects
Balaclava	7.7%	General	excellent, stone, on heights
<i>Hospitals in operation only after sanitary reforms</i>			
Renkioi	3.8%	Hut	excellent, new prefab
Castle	3.8%	Hut	excellent, on heights
Monastery	3.1%	Convalescent	excellent, on heights

† Source: Chenu (1870) 131.

Exhibit 8. 크림 전쟁에 파견된 간호사들



Exhibit 9. 나이팅게일이 군 병원의 높은 사망률에 관해 작성한 통계 자료



19세기 중반 크림전쟁에서 활약한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파이 차트가 있다. 일명 '장미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린다. 당시 군대에서는 전쟁에서 전사하는 군인의 수보다 불결한 환경 때문에 감염병에 걸려 죽은 사상자가 더 많았다. 병영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통계 자료와 함께 건의해도 의회에서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이팅게일은 통계 내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었다. 먼저 월별 사망자 수를 원인 별로 분류해 모은 뒤, 그에 비례하는 반지름의 부채꼴로 그렸다. 그림에서 푸른 색 영역은 위생 상태 때문에 죽은 병사의 수고, 붉은 색은 직접적인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 그리고 검은색은 기타 원인이다. 부채꼴이 클수록 사망자가 많다는 뜻으로, 감염병으로 사망한 병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다. 이후, 나이팅게일은 인도의 시골 위생 상태를 개선하도록 의회를 설득하는데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Exhibit 10. 군 병원 책임자와 나이팅게일의 대화

나이팅게일: "윌리엄씨,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군요. 기억 하시지요? 이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윌리엄: "아가씨, 지금 급한 일을 보고 있으니 다음에 다시 오시오."

나이팅게일: "윌리엄씨, 군 장병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지요? 제가 보낸 자료를 보셨지요? 병원 위생은 부상병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데 중요해요."

윌리엄: "아가씨,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아가씨의 일은 간호일이에요. 아가씨는 간호사이고,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간호가 아니요? 아가씨의 일을 하시오."

나이팅게일: "이봐요, 윌리엄씨. 간호는 약을 바르거나 먹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간호는 환기, 채광, 난방, 청결, 정숙 등의 적절한 활용과 식이의 적절한 선택과 관리 등, 환자의 체력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죠! 이건 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병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스쿠타리 병원에서의 사망률이 한 때 40%에 달하기까지 했다는 걸 잊으신 건 아니겠죠? 사망률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민간인 사망률의 두 배예요! 이것이 무고한 병사들을 데려와 일년에 1100 명씩 총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윌리엄: "아가씨, 전쟁은 원래 치열한 것이고, 많은 군 장병들이 조국을 위해 영광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숭고한 희생을 맞이하지. 전투를 해보지 않은 여자 따위가 지금 전쟁의 사망률에 대해서 말하고 있소? 빨래를 하고 쥐를 잡는 그런 것들은 알아서들 하시오! 내가 간부회의 때 당신의 제안서를 꺼냈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시오? 하! 빨래를 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해달라니, 지금 우리 부대의 재정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거요? 주둔지를 방어할 무기를 살 돈이 부족해 무딘 칼을 최전방의 병사에게 쥐어줄 수 밖에 없고, 의사 수도 턱없이 모자라 매일 속출하는 부상자들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하고 있소. 당신이 쥐새끼들과 벼룩과 싸울 때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Exhibit 11. 스쿠타리에서 나이팅게일의 기타 활동

시기	개혁 전	나이팅게일의 활동
I	소규모 병원들에서 약식 치료를 받은 후에 부상자들은 200명씩 한 조가 되어 흑해를 건너 스쿠타리로 후송되었다. 수송 기간은 3주 이상이 걸렸으며 그 동안 많은 환자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여왕에게 행정적 개혁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II	영국에서 보내 온 물품들이 선박 아래 가려져 스쿠타리를 지나치고, 이후 흑해를 세 번 왕복한 끝에 스쿠타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탁송물의 수령과 배분을 위한 정부의 물류 창고를 스쿠타리에 설립해야 한다고 본국에 주장하고 6개월 후 이루어졌다.
III	비정규적이고 비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였다.	사치품이라 비난받기는 했지만 수프, 와인, 젤리 등 특별 음식들을 제공하기도 했고 음식이 동일한 몫으로 규칙에 의해 배분되도록 기준을 정하였다.
IV	병실 침구 및 셔츠는 거의 세탁되지 않았으며 하더라도 찬물에 세탁하였다.	터키식 보일러를 설치하고 세탁을 위해 병사 부인들을 고용하였다. 비용은 나이팅게일 자신의 자금과 <타임즈>의 기부금을 사용하였다.
V	크리미아 반도로부터 대규모 환자들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으나 병실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 지출이 재가 되려면 몇 개월이 걸렸다.	개인 자금을 125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방치되고 있는 황폐화된 방을 확장 공사하여 5백명의 환자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VI	병동의 회복기의 환자 병사들을 방치하였다.	병사들을 위한 독서실, 오락실을 만들고 비품을 비치하였고 그들을 상대로 수업과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영향으로 병사들이 급료를 저축하기 시작하자 본국 송금을 위한 자체 기구를 설립하였다.

참고문헌

김헌숙. (2006). 연구논문: 자선병원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섹스 병원의 사례 연구, 1820-1880. *영국 연구, 16*(단일호), 89-122.

리튼 스트레이치, 빅토리아 시대 명사들, 이태숙 옮김,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3 년, 129-189 쪽.

샌디 덩글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김준식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90 년.

박중석,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네이버캐스트, 2010. 06. 22,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75&pc&contents_id=2802.

정준호, 군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 코리아헬스로그, 2013,
<http://www.koreahealthlog.com/?p=15128>.

Cook, E. T. (1914). *The Life of Florence Nightingale: 1862-1910* (Vol. 2). Macmillan.

Gill, C. J., & Gill, G. C. (2005). Nightingale in Scutari: her legacy reexamined.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40*(12), 1799-1805.

Kinglake, A. W. (1899). *The invasion of the Crimea*. William Blackwood and sons.

Osborne, L. S. G. (1855). *Scutari and its Hospitals*. Dickinson brothers.